

대학별 평가항목 9월 모평 결과 상향·적정·안정 배분

수시 원서작성 체크포인트

대입 수시 원서접수 약 7주 남아
데이터 기반 지원전략 필요한 때
정시지원 가능성 미리 설정해야

“6장 초안 먼저 마련한 뒤 9월 모의평가 결과 반영해 확정”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약 7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가 전까지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 최근 입시 결과, 대학별 전형 변화를 토대로 수시 원서 6장의 초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1일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다.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할 경우 내신 등급뿐 아니라 대학별 서류 정성평가 반영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대학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과목 선택 이력 등 평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수험생들이 6월 모의 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시스

건국대의 경우 2027학년도 수시에서 KU 지역균형전형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토대로 학업·진로 역량을 평가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전체를 활용해 학업·진로·성장·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도 미리 정해야 한다. 3·5·6·7월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종합해 현재 정시

지원 가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지원 대학을 나누야 한다.

이투스는 수시 6장 가운데 정시 지원 가능성보다 높은 대학에 2~4장, 비슷한 대학에 1~2장, 낮은 대학에 1~2장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시 합격으로 정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수능 이후 면접이나 논술을 실시하는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대학 수가 아니라 전형 수를 기준으로 최대 6회까지다. 같은 대학에서 여러 전형에 지원해도 각각 1회로 계산된다. 또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하거나 총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 지원 대학뿐 아니라 전형별 합격 가능성과 정시 지원 제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2~3년간 입시 결과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학이 공개한 최종 등록자 50%·70% 합격선뿐 아니라 두 점수의 간격과 총원율, 모집 인원 변화,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경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 입시 결과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형이 지난해와 달라진 대학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종대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반영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췄다. 학생부종합전형인 ‘세종창의인재전형’ 명칭도 ‘세종인재전형’으로 바꿨다.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인문계

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 등급 합 5에서 6으로 완화한다. 중앙대 논술전형은 일반형과 창의형으로 나뉘며 지원 자격과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달라진다. 인하대 논술우수자전형도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며,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은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인다.

한국외대는 논술전형에서 LD학부와 L·T학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 등급 합 3’에서 ‘합 4’로 완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의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을 바꾼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가고 싶은 대학만 정하기보다 성적과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 지원 대학을 구분해 원서 초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시 가능성을 수정한 뒤 수시 지원 대학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인천시, 인천신항 ‘해상풍력 허브’ 구축

유지보수 지원부두 조성

인천광역시와 인천신항에 해상풍력 유지보수 지원부두를 조성하기 위한 항만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20일 고시되면서, 인천신항 1~2 동측부지를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 해상풍력 단지 배후에서 유지보수 산업의 기반이 될 항만 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민선 9기 공약에 맞춰 이곳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로 키울 계획이다. 관련 기업들을 모아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짓고 지원부두 사업화를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현재 개발사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장 수요와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산업 전망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세

울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지원부두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항만 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민간투자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민선 9기 임기 내 착공을 실현하고, 오는 2032년까지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인천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는 지원부두를 기반으로 통합관제센터, 안전훈련센터, 자재창고 및 부품 교체·정비 시설 등을 집적하고, 드론·로봇활용, 인공지능기반 예측진단 등 미래 기술분야의 연구·실증까지 연계하는 종합 산업 플랫폼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확대

155곳 선정… 전년대비 32곳 증가
돌봄·교육·환경 등 지역사회 활동

서울 소재 대학 동아리 155곳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6000여명이 오는 11월까지 돌봄과 교육,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2026년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동아리 15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참여한 123곳보다 32곳 늘었다.

올해 사업은 동아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기획형’ 114곳과 서울시 행사·정책 현장에 참여하는 ‘참여형’ 41곳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획형 동아리는 복지 26곳, 교육 30곳, 문화 49곳, 환경 9곳으로, 전공과 동아리 특성에 맞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건국대 ‘건국금융연구회’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금융교육 멘토링을 진행하고 화폐박물관 방문 활동을 운영한다. 숭실대 제어학회 ‘ACC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 기술을 소개하고 코딩 체험교실을 연다. 중앙대 ‘시류즈’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외대 ‘취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며, 삼육대 ‘한 페이지 가 될 수 있게’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과 책 나눔 활동을 운영한다.

참여형 동아리는 서울시 행사와 정책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연합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피티스타’는 지난달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시민 대상 기업 전시 부스 안내를 맡았다. 연합 동아리 ‘숲속의 화실’은 재활용 종이와 천

연 재료를 이용한 카드·책갈피 제작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를 운영했던 동아리 부대표 정석환 씨(건국대 산업경영정보공학과 3학년)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한 동아리가 서울시의 대규모 행사에서 직접 부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감회가 새로웠다”라며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예술을 매개로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사회기여 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참여형 동아리들은 앞으로 서울아외도서관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차 없는 잠수교 무박무휴 축제, 서울시립과학관 행사 등에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대학 동아리 123곳이 모두 1661차례 활동했으며, 누적 참여 시민은 9만4596명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행정·문화 거점 ‘경기융합타운’ 완성

복합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방침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정원 개발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 근무하는 복합시설의 이름이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되으나, 행정기관 간 협

업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개발 방향을 융복합타운 형태로 전환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유관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로, 기관들이 물리적 거리를 좁혀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도민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융합타운 전경. /경기도

도는 경기정원과 녹지공간, 소토광장 등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휴식과 교류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행정 기능을 넘어 도민 참여와 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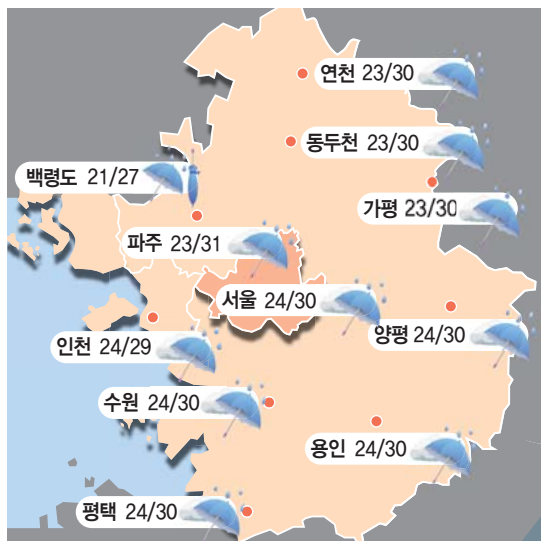
해돋이 / 05:28 | 해질 / 19:49

7월
22일(수)
음력: 6월 9일

수도권 날씨

24 ~ 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 류샤오밍 한반도특별대표, 韓 청년우호대사 대표단 접견
▲“美 민주당, 이란전 예산 통과 막아 트럼프 확전 저지 총력”

▲홍해 봉쇄시 세계 원유공급 7% 감소… “한국 수입 33% 차질”
▲中, 주중 필리핀 대사 초치… “남중국해 도발에 강력 항의”



▲트럼프-시진핑 회담 무색… 中 6월 미-브라질 대두 수입 차이 더 커져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 중동전쟁 중단 촉구할 듯
/사진 뉴스스